

2만9000개社 역대 최대 참여 이벤트·특가전 등 행사 풍성

동행축제 개막

전통시장·지역축제 등 144곳 행사
12개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특별전
공영홈쇼핑, 현장 라이브 방송 진행

역대 가장 많은 2만9000여개사가 참여하는 9월 동행축제가 1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달 30일까지 9월 한 달간 펼쳐지는 동행축제에는 전통시장, 야시장, 지역축제 등 전국 144곳에서 풍성한 행사가 펼쳐진다.

중기부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진행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절약은 변하지 않는 미덕이지만 때로는 가치 있는 소비가 더 큰 희망을 가져온다"며 "동행축제를 통해 작지만 따뜻한 소비가 모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주말 제주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역량강화 통합 워크숍'에 참석,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제주 올레 8코스에서 진행된 '제1회 전국소상공인 한마음걷기대회'에서 (앞줄 왼쪽에서 5번째부터)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이런 가운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9월 동행축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네이버·롯데온·G마켓 등 12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전(최대 30% 할인) ▲동반성장몰 추석 맞이 특별전 ▲행복한백화점 브랜드 특가전(최대 80%) ▲롯데백화점 잠실점(9.9~9.11)과 부산점(9.19~9.25)에서 '우수 중소기업 판매전' 등을 각각 연다.

공영홈쇼핑도 판로지원 행사에 적극 동참한다. 공영홈쇼핑은 동행축제 개막식 현장에서 공영라방 '릴레이 현장 라이브'를 진행해 지역 특산물을 판매

하기도 했다.

한편 동행축제는 9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6000여개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8개 글로벌 쇼핑몰에서도 국내 소상공인 400곳의 제품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선 전통시장 등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내 판관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 700여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의 핵심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매출 증진을 위한 여러 이벤트도 전국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로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참가

'폴란드형 K2 전차' 첫 출격

다목적 무인차량 등 목업 전시
"폴란드 방산업계 협업 기회 모색"

폴란드형 K2 전차(K2PL 주력전차)가 동유럽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인다.

현대로템은 오는 2일(현지시간)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Kielce)에서 열리는 '제33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로템이 4년 연속으로 참여하는 MSPO는 폴란드에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방산전시회다. 지난해에는 35개국 방산 업체와 총 3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지난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한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전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미래무인기술까지 폭넓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현대로템은 현지에서 양산될 폴란드형 K2 전차를 목업으로 공개한다. 오는 2028년부터 생산될 폴란드형 K2 전차에는 적군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 가능한 능동방호장치(APS)와 전파를 교란해 드론의 정상 가동을 막는 드론 제머(ADS)가 탑재된다. 여기에 원격사



현대로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전시관 전경. /현대로템

격통제체계(RCWS)와 성능이 개선된 특수 장갑으로 작전수행능력도 더욱 높아진다.

향후 국내 전차에도 능동방호장치와 드론 제머 등을 탑재해 우리 군이 더 안전하고 강력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전동화 등 미래 기술이 집약된 다목적무인차량(HR-세르프)도 실물 크기의 목업으로 함께 전시된다. 이 밖에 차세대 전차인 유무인 복합 전차와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장갑차도 목업으로 전시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방산 업계와 더욱 광범위하고 긴밀한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현지 안보 수호는 물론 K-방산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견기업 62% "하반기 수출 줄어들 것"

美 관세 영향 등 수출 악화 전망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하반기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상호관세 현실화와 철강·알루미늄과 생수 등에 대한 품목관세 확대로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해 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1.5%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 하반기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악화 전망'은 상반기보다 22.8%포인트(p) 늘어 더욱 암울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67.5%) ▲관세 부담 증가(53.7%) ▲환율 변동성 확대(21.1%) 등이 주요 요인(복수응답)으

로 꼽혔다. 특히 관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이 전반기의 15.6%보다 크게 상승했다.

상반기 수출 과정 중 가장 많은 애로를 경험한 국가는 미국(49%), 중국(18.0%), 베트남(5.5%) 순으로 조사됐다. 자동차(72.4%), 고무·플라스틱(80.0%), 금속(78.9%)은 미국이, 화학물질 업종은 중국(47.6%)에서 고전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수출 실적 악화 대비 방안으로는 '수출국 다변화'(55.3%)가 첫 손에 꼽혔다. '품질 향상 및 가격 조정'(35.8%), '내수 비중 확대'(35.0%), '신제품 출시'(20.3%) 등도 거론됐다.

향후 수출 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제 이슈로는 '미국 통상 정책 및 법률·제도 변화'(49.5%)가 가장 많

이 꼽혔다. '중국 시장 변동성'(19.0%), '미·중 경쟁 심화 및 공급망 재편'(10.5%) 우려도 높았다.

이런 가운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무역·수출 금융 지원 확대'(47.0%), '주요 원자재·부품 수입 관세 인하 및 공급 안정 지원'(24.5%), '물류 관련 비용 및 인프라 지원'(14.0%) 등이 거론됐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과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부담 증가와 세계 경기 둔화,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구노력에 더해 무역금융 확대, 원자재 관세 인하, 물류 인프라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전향적으로 강화, 민관의 협력 체계를 강고히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무역·통상 환경에 대한 산업 전반의 대응 역량을 증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층간소음 저감 기술력 입증

LH '차단성능 1등급' 인정서 획득

LX하우시스와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바닥충격음 품질시험에서 업계 최저 수준의 낮은 소음수치를 기록하며 층간소음 저감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와 관련해 LX하우시스는 GS건설과 공동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가 최근 LH품질시험인정센터에서 실시한 바닥충격음 품질시험에서 중량충격음 31dB, 경량충격음 27dB을 기록, LH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1

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기록한 중량충격음 수치(31dB)는 1등급 기준(37dB 이하)보다 6dB이 낮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치로 국내 역대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에 1등급을 확보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는 실제 주거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음 저감이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향후 GS건설과 함께 현장 적용 확대에 속도를 높여 국내 주거문화의 고질적 문제인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벤츠코리아, 이상국·김은중 부사장 선임

마케팅·세일즈 역량 강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마케팅 및 세일즈 역량 강화를 위한 부문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벤츠 코리아는 1일 디지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이상국 부사장을, 제품 및 세일즈 부문에 김은중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세일즈 부문 총괄을 맡았던 이상국 부사장은 디지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기업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경험 강화를 위



이상국 벤츠코리아 부사장 김은중 벤츠코리아 부사장

한 디지털 비즈니스, 마케팅,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은중 제품 및 세일즈 부문 총괄 선임 부사장은 제품 전략, 인증뿐 아니라 세일즈 기획 및 리테일 운영 등도 총괄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신설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가입

앞으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사치품이나 대형 마트 등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에서 간담회

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 상권 등 취약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대형 마트, 대형 병·의원, 고가 사치품 및 기호 식품 취급 업종까지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가맹점 기준을 신설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금액 기준을 신설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 유통 근절에 매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